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퇴직연금 관련 고금리 경쟁 감독 강화

-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양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0년 4월말 기준 53개 등록사업자, 16조 7,664억원의 적립금 규모를 달성함.
 - 은행(15개)이 8조 3,591억원으로 전체 49.9%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(21개)은 6조 855억원으로 36.3%, 증권(17개)은 2조 3,218억원으로 13.8%의 비중을 나타냄.
 -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(DB)이 67.4%, 확정기여형(DC)이 20.4%, 개인퇴직계좌(IRA)가 12.2%를 차지했고 운용 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89.2%, 실적배당형이 8.4%, 기타가 2.4%로 나타남.

- 금감원은 퇴직연금과 관련한 고금리상품의 과당경쟁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공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함.
 - 첫째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퇴직연금상품 판매로 인한 사업손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심사기준금리를 설정하도록 지도함.
 - 둘째로 금리수준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상품을 제공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함.

- 이번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 퇴직연금시장의 금리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을 시행할 계획임.
 - 감독 강화 조치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, 적립금 운용역량 강화, 가입자교육 등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.
 - 이번 강화조치가 시장에서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특별이익 제공 등의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도 강화할 계획임.

(퇴직연금사업자의 리스크관리 강화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,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연금팀, 5/25)